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5.26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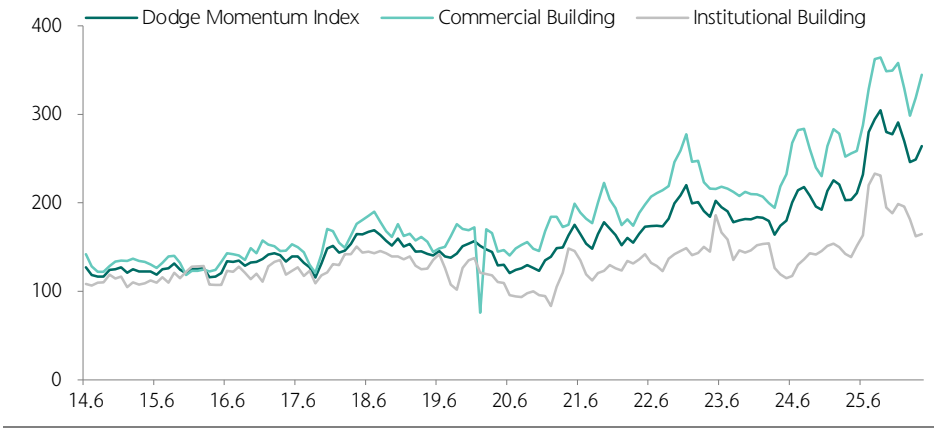
Make America Great Again by AI

AI는 미국 건설 및 제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AI 산업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한다. 인공지능은 데이터센터 건설과 AI용 부품 제조 설비투자 등을 통해 미국의 건설과 제조업이라는 실물경기를 견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압박으로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약 9.6조 달러 규모의 미국향 투자 약속을 받아냈으나,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에서 나타나듯 무역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이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 효과가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건설 및 제조업 등 실물 경기가 활성화되면 지지율에 우호적일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 AI가 미국 건설과 제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데이터센터 건설이며, 다른 하나는 AI용 부품 제조를 위한 설비투자다. 미국의 조사기관 Dodge Construction Networks의 건설 계획 지표(Dodge Momentum Index, DMI)는 작년 하반기 가파르게 상승한 뒤 현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 계획 지표와 달리 건설 착공 지표(Dodge Construction Starts, DCS)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대규모 데이터센터 및 제조시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건설 계획 지표는 건설 착공을 12~18개월 선행하는 특성이 있다. 하반기에 프로젝트 착공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 데이터센터 건설 모멘텀은 계획지표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4월 DMI는 264.2로 전년 대비 29.8%, 전월보다 6.2% 개선됐다. 2025년 12월 291을 정점으로 낮아지던 건설 계획 지수가 올해 2월을 저점으로 반등하고 있다. 상업용 건물 건설 계획은 344.6으로 YoY +34.6%, MoM +8.1%를 기록했다. 전통적인 사무용 건물과 데이터센터, 창고, 호텔 및 주차장 건설 계획 활동은 증가했으나, 소매점 건설 계획은 둔화됐다. 기관 건물 건설 계획은 164.7로 YoY + 18.8%, MoM +1.5%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둔화되던 흐름에서 반등에 성공했다.
- 상업용 건설 계획 지수에서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데이터센터를 제외한 상업용 건설 계획은 전년 대비 5.8% 수준에 불과하다고 조사기관은 평가했다. 주요 대규모 데이터센터 계획은 구글 데이터센터 1번 빌딩(웨스트버지니아주 버펄로, 5억 달러 규모),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프리버드 2단계(텍사스주 벌링턴, 4억 7천만 달러), 제이 데이터센터(메인주 제이, 4억 5천만 달러 규모) 등이 있다.
- 착공 지표 역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다. 4월 DCS는 1조 3,2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1%, 전월 대비 9% 개선됐다. 4월 건설 착공을 견인한 것은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발전 부문 등이다. 하위 항목별로 비주거용 건설착공은 5,500억 달러(YoY +41.4%, MoM +18.8%)로 가장 강했고, 주거용 건설 착공은 3,830억 달러(YoY +6.7%, MoM -0.8%), 비건물(Non-Building)은 3,940억 달러(YoY +41.2%, QoQ +7.1%) 등이었다. 비주거용 건설 착공 하위 항목 중 사무실과 데이터센터는 전월 대비 46.1% 증가했다. 제조시설 건설은 높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9.3% 감소했다. 4월에 착공한 대규모 비주거용 건물 프로젝트는 리지 데이터센터 1단계(텍사스, 50억 달러 규모),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캠퍼스(미시간주, 130만 달러), SK 하이닉스의 HBM 첨단 패키징 및 연구 개발 허브 프로젝트(인디애나주, 19억 달러) 등이 있었다.
- SK 하이닉스의 공장 건설은 AI용 부품 생산 대응 목적으로 한 두 번째 경로의 대표 사례다. AI 데이터센터에 쓰이는 서버 부품 가운데 메모리(HBM 등)가 가장 부족한 부품 중 하나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 및 장비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통해 메모리가 2027년 분가지 판매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부품 공급 부족이 신규 설비투자를 자극하는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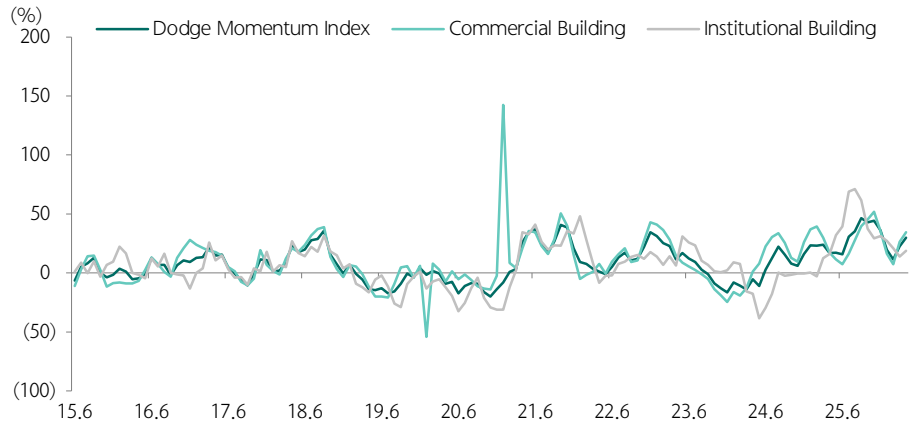
- AI 산업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한다. AI는 미국의 디지털 시스템뿐만 아니라 제조, 건설 등 다방면의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발 무역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4월 제조시설 착공 감소는 전월의 높은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둔화다. 계획 지표 감안함녀 SK하이닉스 사례와 같은 부품 제조 투자는 하반기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물경기 활성화는 중간선거를 앞둔 행정부 지지율에 우호적이며, 행정부의 AI 지원 강화는 산업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도표 1. Dodge Momentum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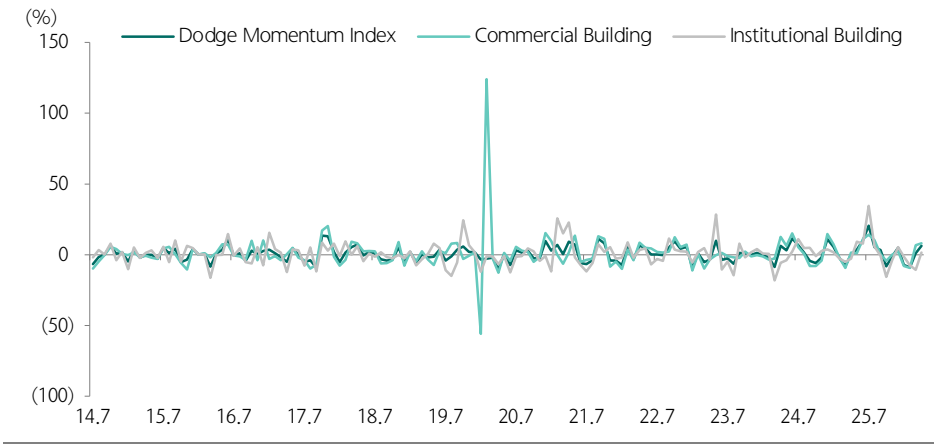
자료: Dodge Construction Networks, 하나증권

도표 2. Dodge Momentum Index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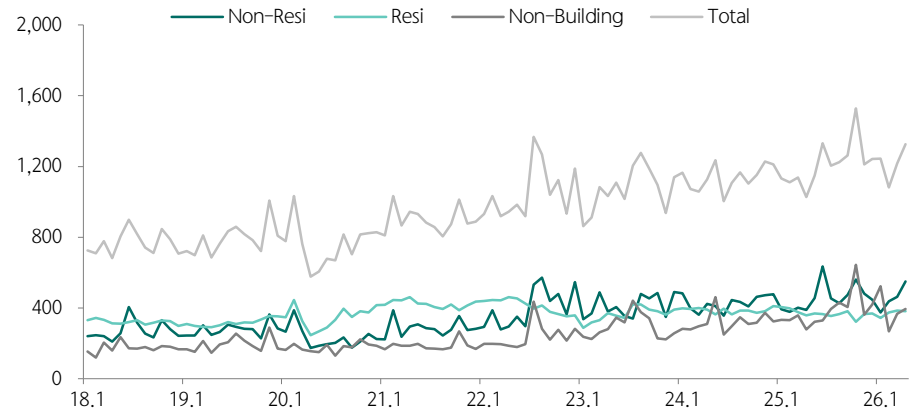
자료: Dodge Construction Networks, 하나증권

도표 3. Dodge Momentum Index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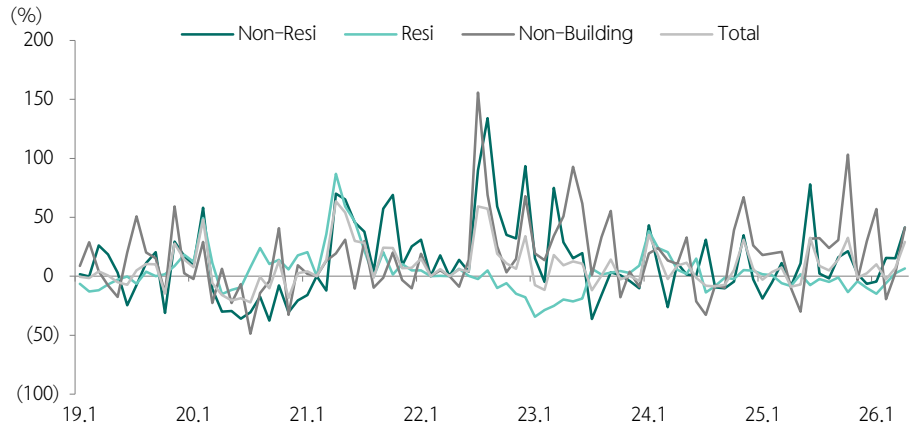
자료: Dodge Construction Networks, 하나증권

도표 4. Dodge Construction St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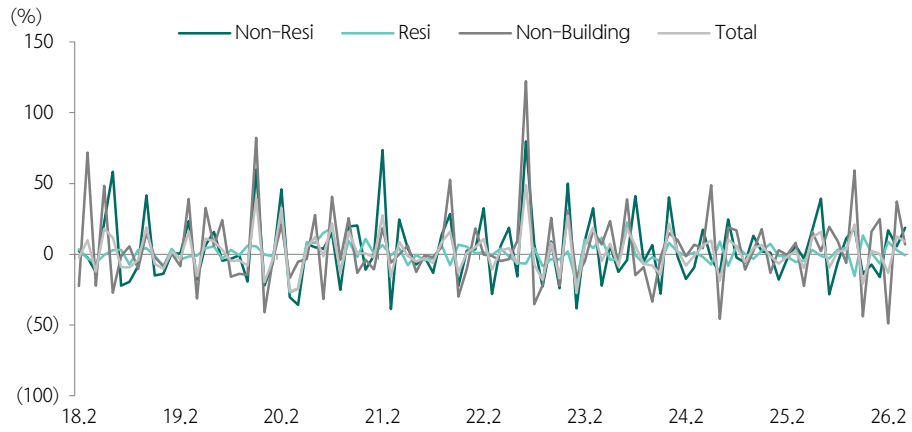
자료: Dodge Construction Networks, 하나증권

도표 5. Dodge Construction Starts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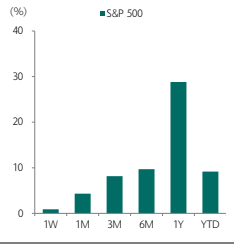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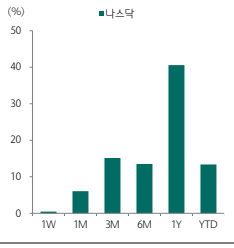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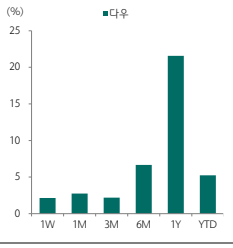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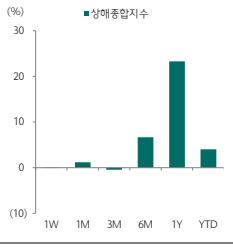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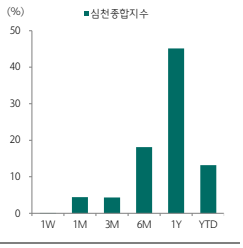
자료: Dodge Construction Networks, 하나증권

도표 6. Dodge Construction Starts MoM



자료: Dodge Construction Networks, 하나증권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473.5	26,344.0	50,579.7	4,127.5	2,864.4
1W (%)	0.9	0.5	2.1	-0.1	0.1
					

주) 5월 22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주(5월 18일~5월 22일) 리뷰: 주간 기준 S&P 500 8주 연속 상승

- 지난주 미국증시 3대지수는 모두 상승했다. 다우지수 +2.1%, S&P 500 0.9%, 나스닥 +0.5%다. 주 초반 S&P 500은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S&P 500은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2.5%,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은 1.8% 상승했다. 시장참여자들은 지난주에 성장주보다 가치주를 더 선호했다. 성장주 ETF(VUG)와 가치주 ETF(VTV)의 수익률은 각각 +0.1%, +2%다. 변동성지수(VIX)는 9.4% 하락했다.
- 주 초반 약세를 보인 이유는 높은 금리다. 미국채 30년물 금리는 5%, 10년물 금리는 4.5%를 상회했다. 전 세계 시장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과 유가 상승 영향이다. 미국 연준 위원들도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폴슨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물가가 안정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으며, 긴축 가능성도 시사했다. 일부 ECB 인사들은 에너지 충격이 길어질 경우 6월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했다. 호주와 스웨덴 등도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 주 후반 증시 상승의 이유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중단 합의 기대감 덕분이다. 현지시각 21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 신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정 부분 진전은 있었다고 한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도 미국의 협상안과 관련해 일부 격차를 좁혔다고 평가했다. 이란 국영 TV는 이란이 최근 미국이 보내온 최신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협상안을 주고받고 있다.
- 주간 수익률 기준 상승 상위섹터는 헬스케어(+3.3%), 유틸리티(+3.3%), 부동산(+3%) 등이다. 헬스케어에선 세부 업종별 차별화가 있었다. 의료기기와 제약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 헬스케어 서비스, 관리의료, 바이오테크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유틸리티 업종의 호재는 PJM의 데이터센터 전력 조달 일정을 앞당겼다는 소식이다. 원래 내년 3월에 실시할 계획을 9월에 하기로 결정했다. PJM이 전력 조달 일정을 앞당기면 독립발전 사업자들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더 빨리 가격에 반영하거나 계약 기회로 연결할 수 있다. 하락 상위업종은 커뮤니케이션(-1.9%), 필수소비재(-1%) 등이다.
- 반도체 ETF(SOXX)는 5.7% 상승했다.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준 것은 Arm(+46.5%)다. Arm은 총 유효시장(TAM) 확대 기대감이 커졌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덕분이다. 엔비디아는 호실적 발표와 함께 CPU 판매 확대를 언급했다. 2026년 CPU 매출 2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엔비디아 플랫폼에 들어가는 Grace와 Vera CPU의 ISA는 Arm 기반이다. x86이 서버 시장의 주류 ISA였으나, 엔비디아의 플랫폼 확장에 힘입어 Arm이 수혜를 받고 있다. Arm이 높은 이익률에도 불구하고 비싸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주요 판매처가 모바일 시장이었기 때문이다.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참여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 시장참여자들은 M7보다 비M7을 선호했다. M7으로 구성된 ETF(MAGS)는 0.7% 하락했고, M7을 제외한 종목들로 구성된 ETF(XMAG)는 2% 올랐다. M7 중 상승한 종목은 애플(+2.9%)과 테슬라(+0.9%), 아마존(+0.8%) 등이다(엔비디아 -4.4%, 알파벳 -3.5%, 마이크로소프트 -3.5%, 메타 -0.6%).

≫ 이번 주(5월 25일~5월 29일) 프리뷰: 지정학적 불안, 금리, 물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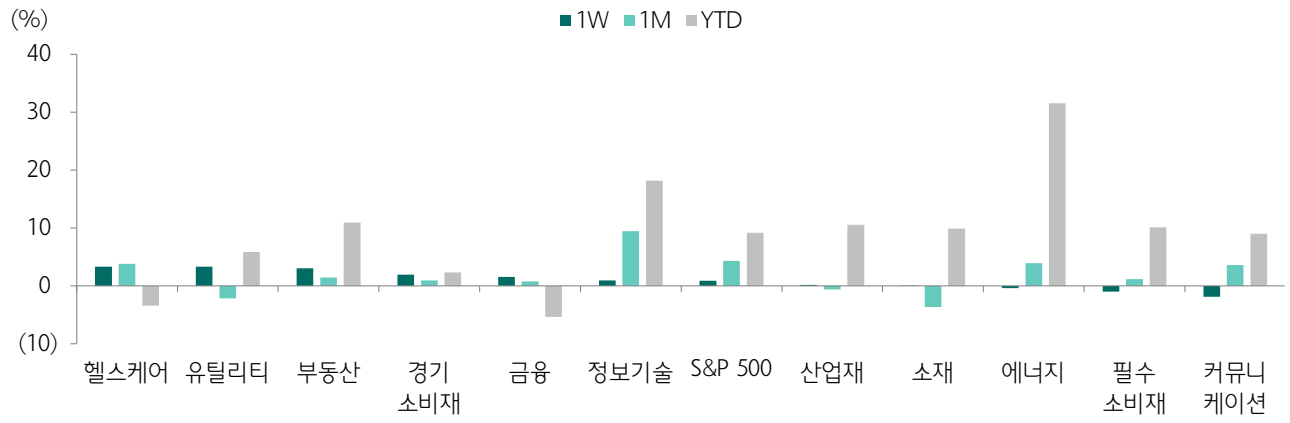
- S&P 500이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다소 부담을 느끼는 시장참여자들이 생겼을 여지가 있다. 지난주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우위가 이러한 투자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 부정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순 있으나, 증시의 추세를 바꾸긴 어렵다고 판단한다. 주도주가 변할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 시장참여자들이 주목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슈는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 해소 여부다. 금리와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시장참여자들은 중동발 물가 상승 우려를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지시각 22일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언급됐다. 미국이 이스라엘 공항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집결시킨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들이 연휴 개인일정을 취소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협상을 두고 막바지라는 표현을 했으나, 최대 쟁점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 주택지표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Dodge Construction Starts의 하위 지수인 주거용 건설 착공은 YoY 기준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역성장했다. 3월과 4월 반등했지만 추세를 완전히 돌아섰다는 수준의 상승세는 아니다.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수요가 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구매 여력을 제약했을 것이다. 가격 상승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나 리치몬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는 양호할 여지가 있다. 미국의 첨단 제조산업 중심으로 생산 수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장비 렌탈 기업 유나이티드 렌탈은 데이터센터 건설 및 일부 제조시설 등의 수요에 힘입어 비수기인 1분기에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 미국 제조업 관련 긍정적인 수치가 나올 여지가 있다. 완만한 확장 흐름세가 반영될 것이다. 미국의 내구재 주문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한다. 항공기 주문 덕분인데, 이를 제외하더라도 제조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감안하면 견조한 수치를 예상한다.
- 시장참여자들은 PCE 가격지수에 주목할 것이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 시장참여자들은 2번 이상의 금리 인하 기대가 있었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기대가 꺾인 상황이다. CME FedWatch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반영되고 있다. 핵심 PCE 가격지수의 Factset 컨센서스는 YoY +3.3%, MoM +0.3%다. 3월 발표한 YoY +3.2%, MoM +0.29% 대비 높은 수준이다.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시장참여자들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불안을 느낄 것이다. 상품 물가가 중요할 것이다. 관세의 영향력이 반영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 25일(월)은 미국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다. 메모리얼 데이는 미국 남북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 등 군사 작전에서 사망한 모든 전사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지표는 26일 3월 주택가격지수(이전치 441.4) / YoY(이전치 1.7%) / MoM(이전치 Flat) / 5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이전치 92.8) / 5월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이전치 -2.3), 27일 MBA 30년 모기지 금리(이전치 6.56%) / ADB 주간 고용 변화(이전치 42.25K) / 28일 4월 건축 허가(예상치 1.442M. 이전치 1.363M) / 1분기 GDP QoQ(예상치 2%, 이전치 2%) / 4월 헤드라인 PCE 가격지수 YoY(이전치 3.5%) / MoM(이전치 0.7%) / 4월 핵심 PCE 가격지수 YoY(이전치 3.2%) / MoM(이전치 0.3%) /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이 있다.
- 연설이 예정된 주요 인사로는 27일 로건 댈러스 연은총재(매파, 투표권 있음), 28일 쿡 연준이사(비둘기, 투표권 있음) / 제퍼슨 연준 부의장(비둘기, 투표권 있음) / 굴스비 시카고 연은총재(중립, 투표권 없음) /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비둘기, 투표권 있음) 등이 있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은 26일 ZS / MOD / VSAT, 27일 MRVL / CRM / PDD / SNOW / HEI / A / P / HPQ / SQM / NTNX, 28일 DELL / ADSK / MDB / OKTA / XPEV / LULU / HRL / PATH / ESTC / AMBA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5/22)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473.5	0.4	0.9	4.3	8.2	9.7	28.8	9.2
나스닥	미국	26,344.0	0.2	0.5	6.1	15.1	13.5	40.6	13.3
다우	미국	50,579.7	0.6	2.1	2.7	2.2	6.6	21.6	5.2
STOXX600	유럽	625.1	0.7	3.0	2.4	-1.3	10.1	14.7	5.6
KOSPI	한국	7,847.7	0.4	4.7	21.2	24.4	98.1	196.8	86.2
KOSDAQ	한국	1,161.1	5.0	2.8	-3.5	-2.3	32.3	60.1	25.5
상해종합지수	중국	4,127.5	0.4	-0.1	1.2	-0.5	6.7	23.3	4.0
심천종합지수	중국	2,864.4	0.1	0.1	4.4	4.3	18.1	45.2	13.2
항테크지수	홍콩	25,606.0	0.9	-1.4	-1.4	-2.9	-1.2	10.0	-0.1
TOPIX	일본	3,935.4	1.1	2.8	5.9	2.4	19.6	43.9	15.4
니케이 225	일본	65,154.0	2.9	7.1	9.1	11.2	33.9	75.3	29.4
니프티 50	인도	23,974.4	1.1	1.4	0.3	-5.9	-7.4	-3.5	-8.2
Vietnam	베트남	1,879.1	0.1	-2.5	1.4	1.0	13.2	43.0	5.3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5.22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헬스케어: 세부 업종별 차별화 두드러지며 의료기기, 제약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
- 유틸리티: PJM의 데이터센터 전력 조달 경매 일정 조기 실시 결정으로 독립발전 사업자 수혜 기대감 반영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 커뮤니케이션: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익성 우려와 규제 리스크가 맞물리며 약세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5/17	**인플레 재점화·국채 금리 5% 돌파** • 4월 CPI YoY +3.8%(2023년 5월 이후 최고), PPI YoY +6.0%(예상치 4.9% 대폭 상회)로 인플레이션 재점화, 7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던 미국 증시에 제동. 30년물 국채 입찰 낙찰 금리 5.046%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5%대 진입, 선물시장은 연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50% 이상 반영. 기관 투자자들은 30년물 5% 지속 상회 시 증시 하락 경고, S&P500 상승분 절반 이상을 단 4개 종목이 견인하는 쏠림도 부담 요인. 상원은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를 54대 45로 인준, 첫 통화정책 회의는 한 달 뒤 예정.
5/19	**시게이트 CEO "공장 증설에 시간 너무 오래 걸려"…주가 6.9% 급락** • 데이브 모슬리 시게이트 CEO가 18일 JP모건 콘퍼런스에서 생산능력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주가 6.9% 급락. 모슬리 CEO는 "새 공장을 짓거나 새 기계를 도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결국 생산 능력은 늘어나겠지만 해당 기술의 성장 속도는 둔화할 것"이라고 언급. 향후 4~5분기 공급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싶으나 실제 수요는 그 수준을 크게 웃돈다고 밝힘. 마이크론·샌디스크·웨스턴 디지털 등 반도체 주가 하락도 동반.
5/20	**스페이스X IPO 주관사로 골드만삭스 선정, 사상 최대 규모 전망** • 스페이스X가 IPO 주관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했으며, 모건스탠리·뱅크오브아메리카·씨티그룹·JP모건이 뒤를 잇는다고 CNBC가 보도. 투자설명서는 이르면 이번 주 수요일 공개될 예정. 머스크가 지난 2월 xAI와 합병 후 평가한 기업가치는 1조2,5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 IPO가 될 전망. 스페이스X는 오픈AI·앤트로픽(각 약 1조 달러 평가)보다 먼저 상장을 추진 중. 머스크가 테슬라를 상장한 2010년에도 골드만삭스가 주관사를 맡은 바 있음.
5/21	**메타, 직원 8,000명 해고·7,000명 AI 부문 재배치 시작** • 메타가 20일부터 직원 8,000명 해고와 7,000명의 AI 관련 업무 재배치를 본격 시행. 재배치 대상에는 AI 모델 최적화를 담당하는 '응용 AI' 팀과 업무 자동화 AI 에이전트 구축 팀 등이 포함. 저커버그 CEO는 직원 메모를 통해 "올해 추가적인 전사적 해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FT는 팀별 감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분석. 메타는 올해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최대 1,4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이번 구조조정은 AI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절감 차원으로 해석.
5/21	**연준 FOMC 의사록 "인플레 지속 시 금리 인상 적절"** • 연준이 20일 공개한 4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과반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2%를 지속 상회할 경우 금리 인상이 적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 거의 모든 참석자가 이란전쟁 종식 후에도 원유·원자재 가격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다수 위원들이 성명서 내 '완화 편향' 문구 삭제를 선호. 현재 4월 CPI는 3.8%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 시장에서는 연내 0.25%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50%, 내년 3월까지 인상 가능성을 70%로 반영 중.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은 22일 공식 취임 예정
5/22	**미국 5월 종합 PMI 51.7 보합. 중동전쟁發 인플레 압력 확대** • S&P 글로벌, 5월 종합 PMI가 51.7로 전월과 보합. 제조업 PMI는 55.3으로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서비스업 PMI는 50.9로 소폭 하락. 중동전쟁 여파로 공급업체 납기 지연이 2022년 8월 이후 최악 수준으로 악화됐으며, 제조업 투입가격 지수는 79.5로 MoM +11.1포인트 급등. 서비스업 고용은 2020년 5월 이후 가장 빠른 감소세를 보이며 민간 부문 전체 고용 지표가 21개월 만에 최저로 하락
5/25	**트럼프 "이란 협상 건설적", 국제유가 5% 급락 및 브렌트유 100달러 하회** •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협상이 매우 질서 정연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국제유가가 급락. WTI는 배럴당 92.05달러(-5%), 브렌트유는 98.88달러(-5%)로 100달러 선을 하향 돌파.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협상 대표들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임. 전날에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여러 현안에서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졌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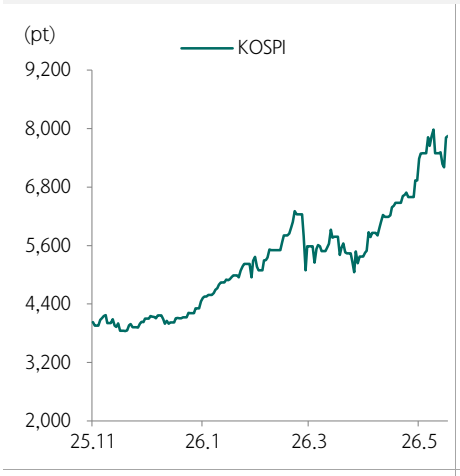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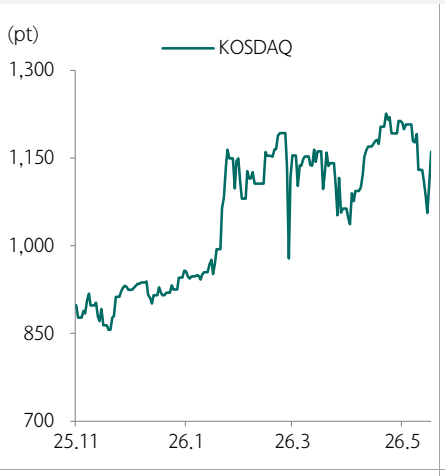
월	화	수	목	금
				1
				XOM CVX LIN CL AON D EL MRNA
4	5	6	7	8
PLTR VRTX WMB ON CQP FN BWXT STRL GRAB POWL AES	AMD ANET SHOP ETN PFE BUD DUK KKR CMI EMR EOG LITE	ARM NVO DIS APP UBER CVS JCI MAR DASH COHR O CGNX	MCD GILD MCK CNQ HWM MELI ABNB NET CRWV LNG DDOG SATS	TM ENB FLR AU
11	12	13	14	15
CEG SPG FOX STE CRCL MOS ASTS PLUG ACM HALO GPRO	VG NXT EXPD ZBRA OKLO CELH ARMK ODD TME QXO LCTX CAMT	CSCO BABA NBIS DT DOCS STUB MSGE	AMAT ROST BN NGG NU VIK FIG	RLX MGTI RBC
18	19	20	21	22
GRTI ONDS IQ BTDR	HD KEYS SE LUNR	NVDA ADI TJX LOW SNPS TGT HAS INTU GLNG ELF ZIM	WMT DE MRVL CRPT TTWO WDAY DG DLTR DECK GAP BULL BBW	BAH BKE EU
25	26	27	28	29
NAT SBR API MOB	ZS PANW SKY MOD VSAT	MRVL CRM PDD SNOW HEI A P WSM DKS BBY SQM NTNX AAP	DELL ADSK MDB OKTA LULU XPEV HRL PATH ESTC AMBA	FRO CG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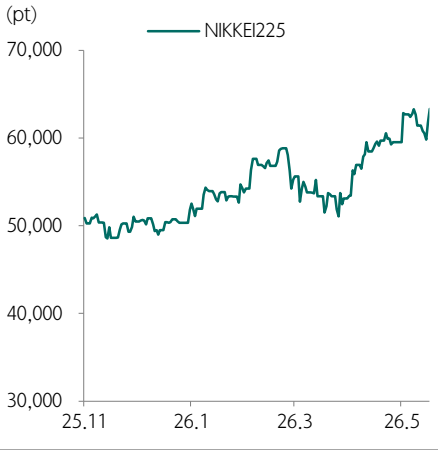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5/25(월)	• 미국 휴장 (메모리얼 데이)
5/26(화)	• 3월 S&P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 (이전 0.4%) • 5월 CB 소비자신뢰지수 (예상 91.8, 이전 92.8)
5/27(수)	• 5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경기현황 • 5월 댈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5/28(목)	• 1분기 GDP, GDP 물가지수 [P] • 4월 근원 PCE (YoY 이전 3.2%) • 4월 PCE (YoY 이전 3.5%) • 4월 신규 주택판매 (예상 661K, 이전 682K)
5/29(금)	• 원유재고 (이전 -7.863M)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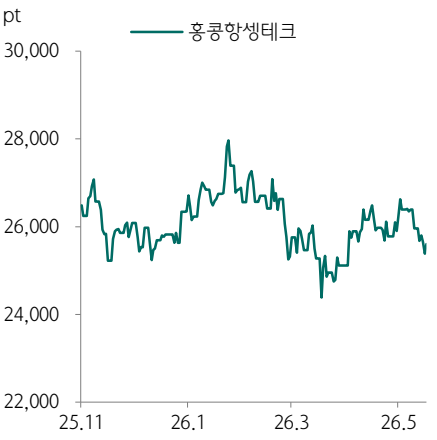

(pt)
KOSPI
9,200
8,000
6,800
5,600
4,400
3,200
2,000
25.11
26.1
26.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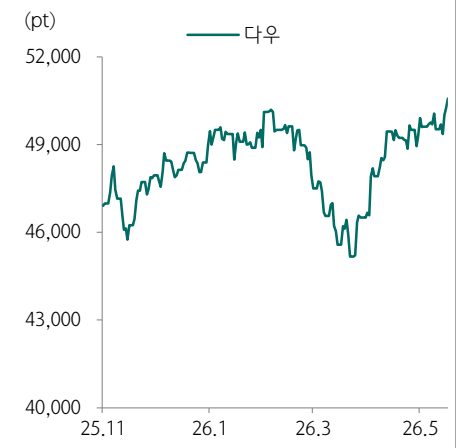

(pt)
KOSDAQ
1,300
1,150
1,000
850
700
25.11
26.1
26.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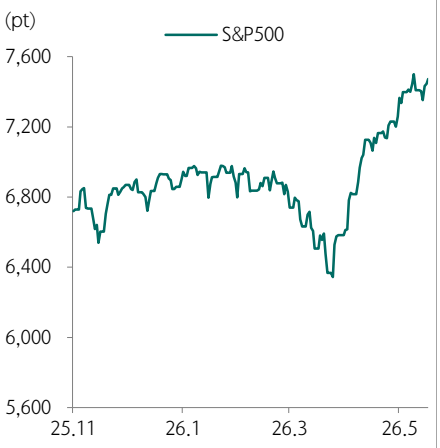

(pt)
NIKKEI225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5.11
26.1
26.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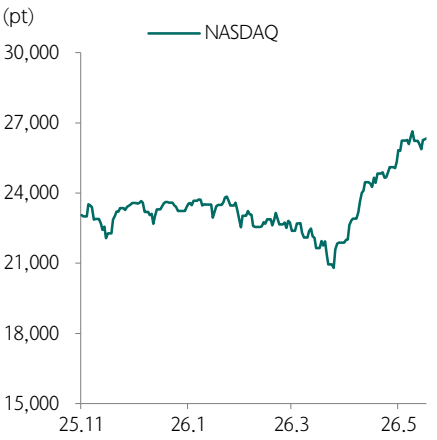
(pt)
상해종합
4,300
4,100
3,900
3,700
3,500
25.11
26.1
26.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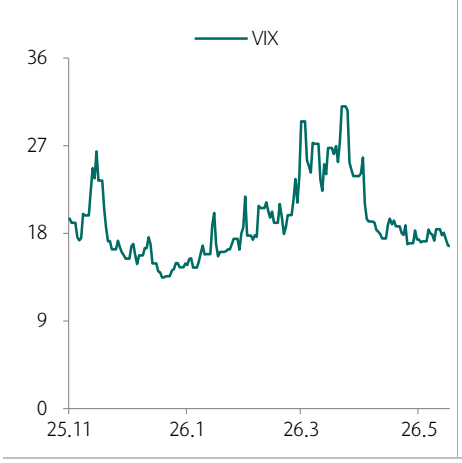
(pt)
심천종합
3,000
2,750
2,500
2,250
2,000
25.11
26.1
26.3
26.5


pt
홍콩항셍테크
30,000
28,000
26,000
24,000
22,000
25.11
26.1
26.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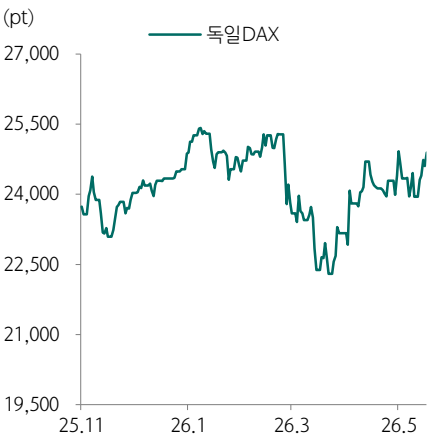

(pt)
다우
52,000
49,000
46,000
43,000
40,000
25.11
26.1
26.3
26.5


(pt)
S&P500
7,600
7,200
6,800
6,400
6,000
5,600
25.11
26.1
26.3
26.5


(pt)
NASDAQ
30,000
27,000
24,000
21,000
18,000
15,000
25.11
26.1
26.3
26.5


VIX
36
27
18
9
0
25.11
26.1
26.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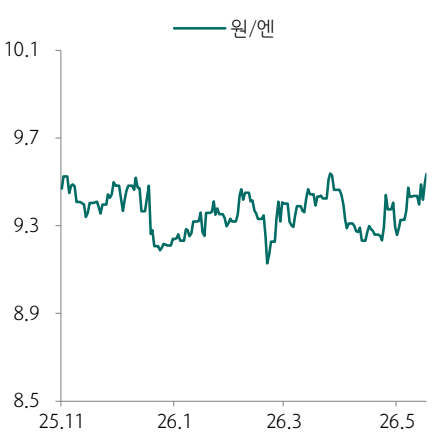
pt
유로스톡스50
6,500
6,000
5,500
5,000
25.11
26.1
26.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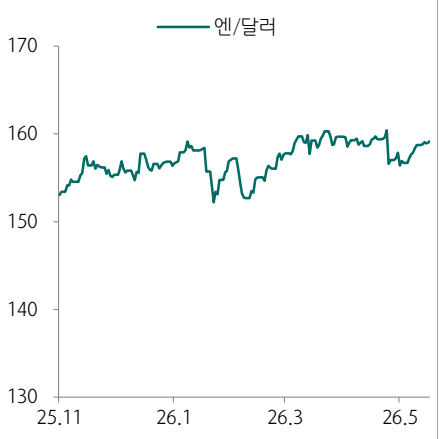

(pt)
독일DAX
27,000
25,500
24,000
22,500
21,000
19,500
25.11
26.1
26.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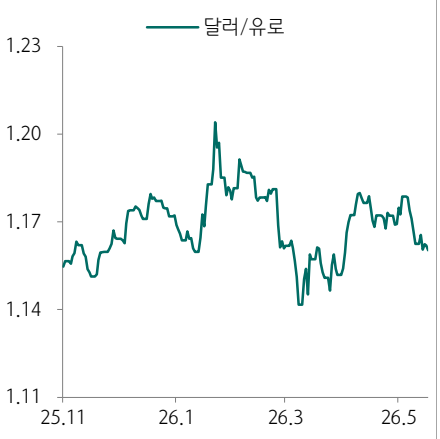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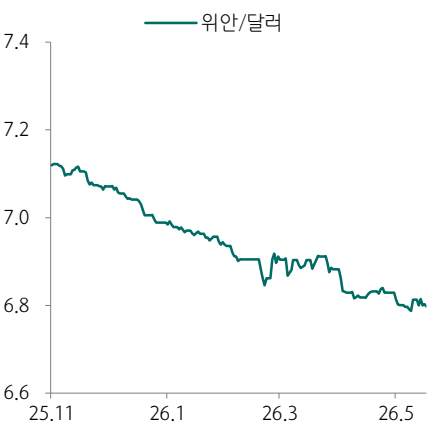
(pt)
달러인덱스
102
100
98
96
94
25.11
26.1
26.3
26.5

원/달러
1,540
1,470
1,400
1,330
25.11
26.1
26.3
26.5


원/엔
10.1
9.7
9.3
8.9
8.5
25.11
26.1
26.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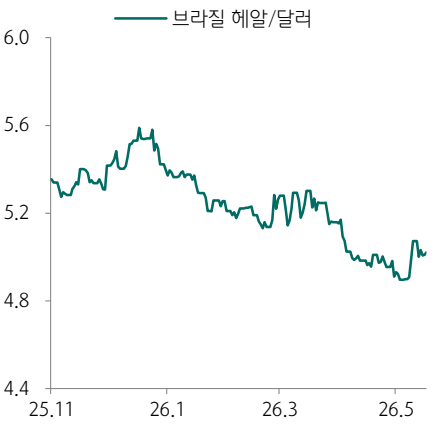

엔/달러
170
160
150
140
130
25.11
26.1
26.3
26.5


달러/유로
1.23
1.20
1.17
1.14
1.11
25.11
26.1
26.3
26.5


위안/달러
7.4
7.2
7.0
6.8
6.6
25.11
26.1
26.3
26.5

달러/파운드
1.40
1.36
1.32
1.28
1.24
25.11
26.1
26.3
26.5

미국달러/호주달러
0.76
0.72
0.68
0.64
0.60
25.11
26.1
26.3
26.5


브라질 헤알/달러
6.0
5.6
5.2
4.8
4.4
25.11
26.1
26.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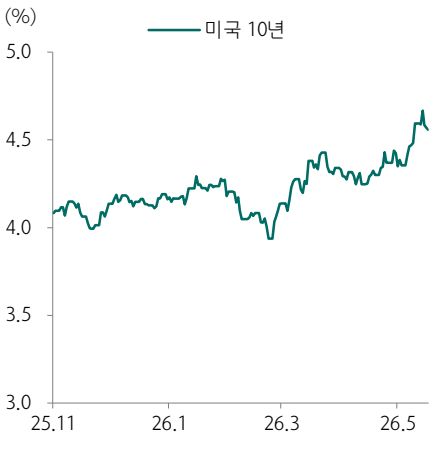
멕시코 페소/달러
20
19
18
17
16
25.11
26.1
26.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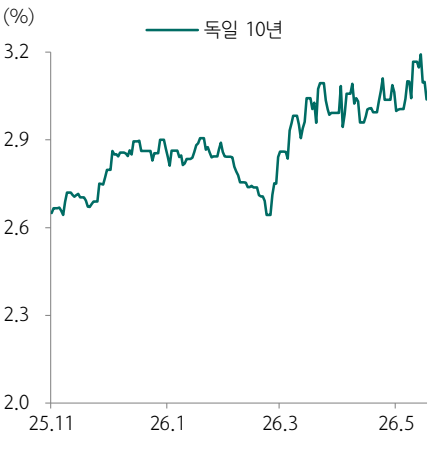
러시아 루블/달러
90
84
78
72
66
60
25.11
26.1
26.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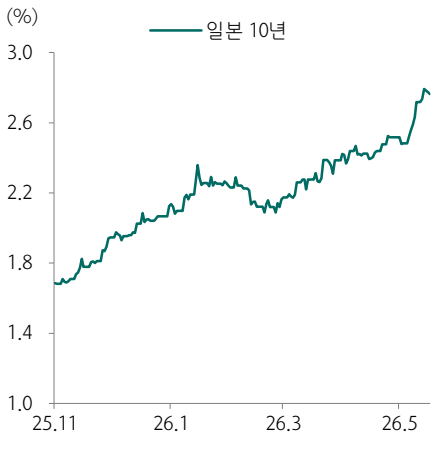
인도 루피/달러
100
97
94
91
88
85
25.11
26.1
26.3
26.5

주요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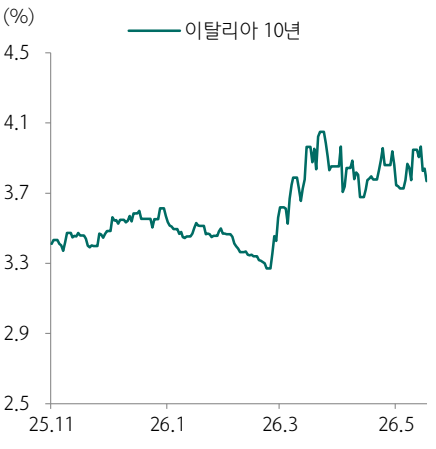
(%)
한국 3년
3.9
3.3
2.7
2.1
1.5
25.11
26.1
26.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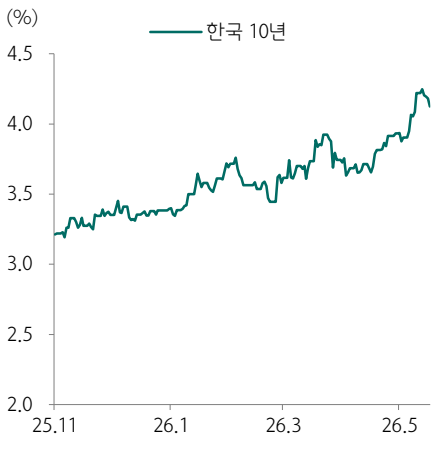

(%)
미국 10년
5.0
4.5
4.0
3.5
3.0
25.11
26.1
26.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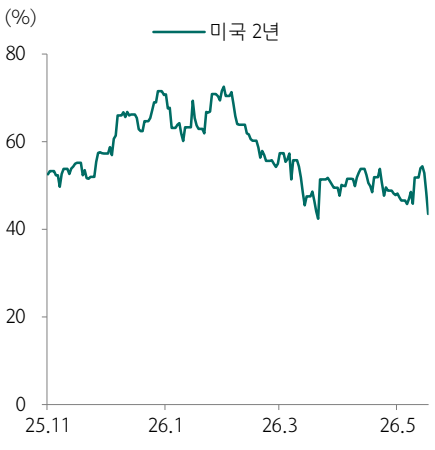

(%)
독일 10년
3.2
2.9
2.6
2.3
2.0
25.11
26.1
26.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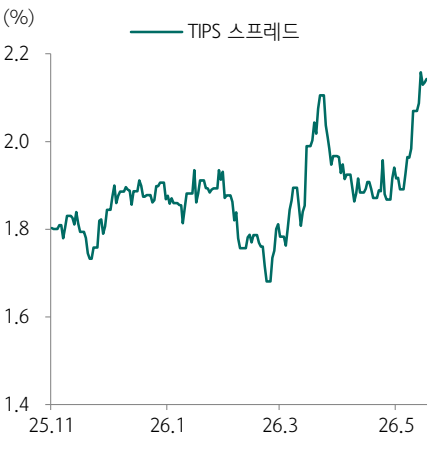

(%)
일본 10년
3.0
2.6
2.2
1.8
1.4
1.0
25.11
26.1
26.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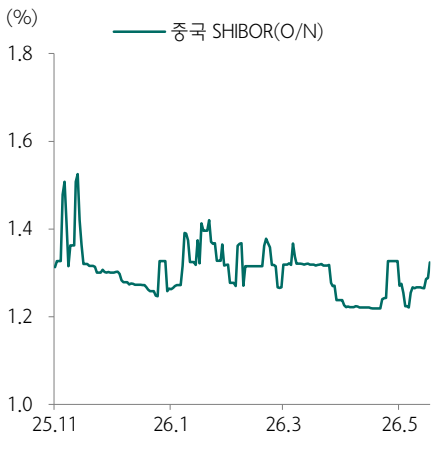
(%)
스페인 10년
3.9
3.6
3.3
3.0
2.7
25.11
26.1
26.3
26.5


(%)
이탈리아 10년
4.5
4.1
3.7
3.3
2.9
2.5
25.11
26.1
26.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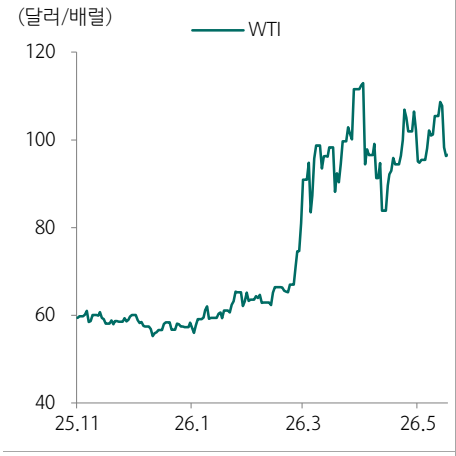

(%)
한국 10년
4.5
4.0
3.5
3.0
2.5
2.0
25.11
26.1
26.3
26.5


(%)
미국 2년
80
60
40
20
0
25.11
26.1
26.3
26.5


(%)
TIPS 스프레드
2.2
2.0
1.8
1.6
1.4
25.11
26.1
26.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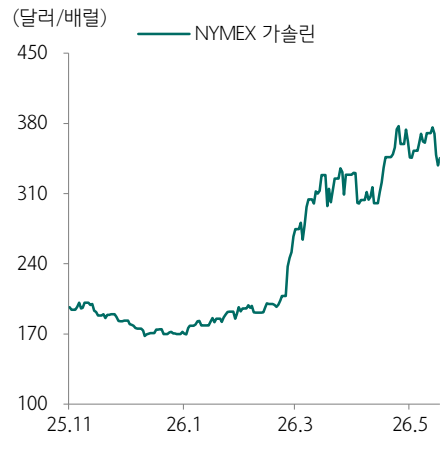

(%)
중국 SHIBOR(O/N)
1.8
1.6
1.4
1.2
1.0
25.11
26.1
26.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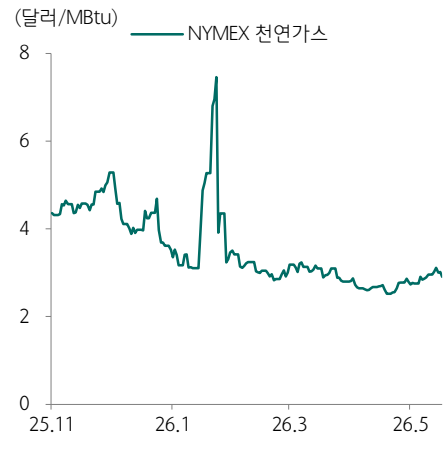
주요 원자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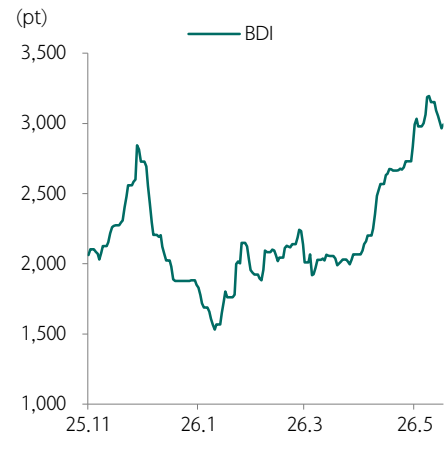

(달러/배럴)
WTI
120
100
80
60
40
25.11
26.1
26.3
26.5

(달러/배럴)
브렌트유
140
120
100
80
60
40
25.11
26.1
26.3
26.5

(달러/배럴)
두바이유
130
100
70
40
25.11
26.1
26.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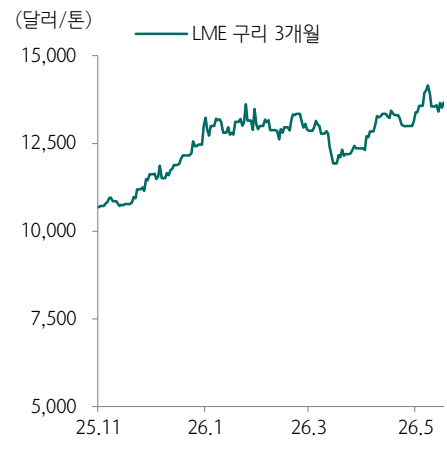

(달러/배럴)
NYMEX 가솔린
450
380
310
240
170
100
25.11
26.1
26.3
26.5


(달러/MBtu)
NYMEX 천연가스
8
6
4
2
0
25.11
26.1
26.3
26.5


(pt)
BDI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25.11
26.1
26.3
26.5

(달러/온스)
금 현물
6,000
5,000
4,000
3,000
2,000
25.11
26.1
26.3
26.5

(달러/온스)
은 현물
160
120
80
40
0
25.11
26.1
26.3
26.5


(달러/톤)
LME 구리 3개월
15,000
12,500
10,000
7,500
5,000
25.11
26.1
26.3
26.5

(센트/부셀)
소맥(밀) 선물
700
600
500
400
300
25.11
26.1
26.3
26.5

(센트/부셀)
대두 선물
1,300
1,200
1,100
1,000
900
25.11
26.1
26.3
26.5

(센트/부셀)
옥수수 선물
500
480
460
440
420
400
25.11
26.1
26.3
26.5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5월 2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5월 26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